



청와대 '커피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 후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왼쪽부터), 권혁기 춘추관장, 문재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욱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직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정부 부처 1·2급 인사 균형 맞춰야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10년간 호남출신 극심한 소외...인재 공백 예산 등 불균형 심각
"총리 후보·靑 비서실장 인사 첫 단추는 잘 꿰었다" 긍정 반응
'실질 권한' 장·차관에 광주·전남 인사 배치 진정성 보여줘야

<1> 인사 소외 해소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60%대 지지로 문 대통령 당선을 뒷받침했다. 이젠 문 대통령이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됐다. 문 대통령이 꼭 이행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점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전남 출신을 비롯해 지금까지 정부 인사정책에서 소외

된 지역 인재의 전향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정책의 협의·결정·집행 주체인 정부부처 고위직을 특정지역 출신이 장기간 독점하면서 기반시설, 예산 등의 불균형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장·차관급 인사는 물론 1·2급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사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낙연(영광) 총리 후보자, 임종석(장흥)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호남인사를 중용하며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역민들도 "일단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동안 극심해진 '인사적폐' 해소에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로 호남 중용 신호탄이 울렸지만 자칫 '지역 균분'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내각 구성단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조카 과정에서 경제·사회 분야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장·차관' 자리에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배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정부 부처의 '실무라인'에 실력을 갖춘 광주·전남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비로소 균형인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행정자치부 고위직 인사에서 정부정사관리소, 옛 소방방재청은 대부분 광주·전남 출신 뒤편이었다. 예산이나 인사를 주무를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오르지 못하고 "한직"만 맴돌았다.

이때문에 해마다 지자체들이 흥겨워처럼 치르는 '국비 전쟁'에서도 광주·전남은 썰매 뿔 수밖에 없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차관, 장관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에서 지역 출신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면서 '비밀 언덕'이 사라진 것이 그 이유다.

▶2면으로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정수석 조국...검찰·권력기관 개혁 의지

문 대통령 청와대 수석 인사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홍보 윤영찬·인사 조현욱
총무 이정도·춘추관장 권혁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

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홍보수석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욱(61)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아울러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국무

조정실장(장관급)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조국 수석의 발탁은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고, 조현욱 신임 수석은 사실상 최초의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균형인사가 구현된 사례라는 평가다. 언론인 출신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홍보수석에 임명한 것은 대국민 소

통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 직을 폐지한 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 등 3건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현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알립니다

2017 달빛 소나기 '광주'

'달빛동맹' 광주·대구 청년 문화 교류·소통의 장

광주일보사는 광주와 대구 지역 간 상상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2017 달빛소나기-광주'를 오는 6월 10일(토)~11일(일) 개최합니다.

달빛은 '달구벌'로 불리는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고, 소나기는 '소통+나눔+기쁨'을 함축한 말입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대구 지역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2017 달빛소나기-광주'가 광주와 대구 지역 간 화합과 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 062-220-0541.

■일시 : 6월 10일(토)~11일(일) ■장소 : 광주신양파크호텔 외 광주 일원
■주요프로그램

6월 10일(토)	제1부 달빛소통	14:00~17:00	프린지페스티벌 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제2부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공감콘서트
6월 11일(일)	제3부 달빛기쁨	09:00~15:00	빛고을 문화 투어 (양림문화마을, 환백당 등)

■주최 :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주관 : 아시아문화
■후원 : 광주일보, 영남일보

光州日報社



이 얼굴, 5·18 때 안봐도 된다

박승춘 보훈처장 사표 수리...황교안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를 각각 수리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사표가 수리된 박 처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

창이 아닌 합창 방식을 고집, 국민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처장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언론에서도 논란이 된 적도 있어서 새 정부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 정상회담 빠르면 다음달 열릴 듯

文, 트럼프·시진핑·아베와 통화

한미 정상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고위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한다.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과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新팔도유람-토요일엔 광주로 ▶18면

김진우 KIA 5선발기회 살릴까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기업을 기업답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아주고 챙겨주고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는
대통령을 만납니다.

모든 지역, 세대, 이념을 아우르듯
포스코 용광로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posco